

주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작성일 : 2023.7.17(월) 새벽1시-7.23(일) 새벽4시

* 하나님의 말씀 *

사랑하는 신부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메시아 예수>가
‘내 아들’임을 잊지 말라.

‘아들의 조건’ 없이는
<절대자 성자>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할 수 없다.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성약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신부인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면
신랑 입장만을 생각하겠으나
성자가 누구더냐.
먼저는 ‘나 여호와 앞에 독생자’ 요
나중이 ‘너희 앞에 신랑’ 이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내 독생자 성자>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냈느냐.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났더니

너희 죄 중에서 난 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이 땅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로만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독생자, 절대자 성자>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다.

[마태복음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같이 <나 여호와>가
진짜 불과 칼을 들고 너희 눈에 보이게 간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 과 함께
이 땅에서 ‘택한 자의 육’ 을 쓰고 함께 해주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창조 목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삼위일체의 성자>를 이 땅에 ‘신랑 입장’ 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성자를 이 땅에 신랑으로 보내기 위해
‘첫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 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메시아 예수 없이는

신약에도 성약에도, 성자 강림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메시아 예수’ 없이는

신약시대에도 성자가 이 땅에 아들로써 강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약시대에도 성자가 이 땅에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으러 갈 수 없다.

<나 여호와>가 ‘내 아들’ 을 너희 신부에게 신랑으로서 보낸 것이다.

<절대자 성자>와 <메시아 예수>는 ‘일체’ 다.

일체인데 왜 따로 가냐!

신약 때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낸
구약 종급에 있던 자들을
신약 아들급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낸
오직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만이 아니었다.

나 여호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의 구원역사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에 대하여도 말씀하였다.

[이사야 62: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태복음 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나 여호와와는

내 아들 성자를 이 땅에 신랑으로 보내어
이 땅에서 신부를 취해서 영육 부활, 영육 휴거시켜
땅에서도 황금 천국에서도
천 년 혼인 잔치하려는 목적을 두고
이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니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그 태초부터
나 여호와와는

마음의 혼인 잔치를 먼저 시작한 것이다.
고로 이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 혼인 잔치 역사에 대하여 내내 기뻐 외쳤노라.

그러나 역사는 키워가며 실체로 이뤄가는 것이다.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역사
종급 구약역사, 아들급 신약역사, 신부급 성약역사로
역사를 키워가며
혼인 잔치의 뜻을 실체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목적에 이루는 모든 일에는 합당한 순서가 있다.

‘너희에게 신랑을 보내는 일’ 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아들을 신랑으로 보낼 준비를 시키는 일’ 이 먼저니라.

<삼위일체의 절대자요, 온전한 영>인 ‘내 아들 성자 본체’가

이 땅에서 ‘너희 육이 있는 신부’를 맞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난 자,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와
<하늘에서 난 자, 삼위일체의 절대자 성자>가
‘일체 되는 일’이 먼저다.

영은 육이 있는 자와 그냥 통할 수 없다.

영은 영이 택하여 쓰는 자의 육과 영과 모두 일체 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 육 있는 자들과 온전히 통할 수 있다.

그러니 창조주 나 여호와와 전지전능함으로
먼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여 세상에 보냈노라.

아들은 조건 없이 낳으면 아들이다.

예수는 성령 잉태되어 육으로 났으니
먼저, 성자의 영은 예수의 육과 조건 없이 일체 되었다.

그 후에 예수가

아들의 조건, 사랑의 조건, 절대적인 십자가 조건을 세워
영으로서 온전히 부활하였으니
이에 성자의 영은
예수의 영과 영으로도 완전히 일체 되었다.

이 시대 사명자는

예수와 함께 신랑으로 강림한 성자와
신랑 신부로서 일체이지
내 아들로써 일체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나 여호와와 독생자>는

‘삼위일체의 절대자 성자 하나뿐’이요,
<내 독생자>와 ‘아들로써 완전히 일체 된 자’도

‘예수 하나뿐’ 이다.

<내 독생자>를 말함은
<삼위일체의 절대자 성자>가 ‘근본이요 먼저’ 이나
‘창조목적의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이룰 때’ 에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린도전서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보라.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힘이 온다.

[고린도전서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신약>은

흙에 속한 인자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기간이요
인자인 예수가, 절대자 성자의 형상을 입어 일체 되는 기간이요
내 아들 성자를, 이 땅에 신랑으로 보낼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다.

이 땅에 ‘내 아들’을 신랑으로 보내는 일인데,
이 땅에서 ‘육’으로 난 너희 신부들에게
어찌 삼위일체의 온전한 ‘영’인 성자 본체만을 보내느냐.

깨닫지 못하니

신부가 신랑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 것이다.

너희는 전체를 꺾어서 못 보고
성자 얘기하면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 얘기하면 시대 사명자 잊어버리고
시대 첫 신부의 사명자 얘기하면
예수도 성자도 잊어버리지 않냐.

성자 본체 얘기를 먼저 했어야
지금처럼 이 말도 알아듣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대로 때에 합당하게
시대 사명자가 성자 본체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를 잊으면 되겠느냐.

아들 조건도 땅에서 이루고
신부 조건도 땅에서 이루고
모두 ‘먼저 땅에서 이루는 역사’ 다.

창조 목적의 성약 역사를 하기 전에
기때 혼인 잔치하며 너희 신부들을 맞기 전에
먼저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노라.
이것이 ‘신약의 역사’ 다.

혼인 잔치의 때, 신부를 맞을 때가 되니

나 여호와와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신랑으로 다시 보내었다.
이것이 ‘성약의 역사’ 다.

2022년은 말씀과 기도의 해였다.
예수가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말씀을 구슬을 꿰듯 종합하여 전해주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여 신앙의 힘을 잃은 자들이 있다.
이제는 구슬을 꿰듯 종합하여
확실히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힘이 오는 때다.

때를 따라 하나씩 쪼개어 가르친 말씀을 듣고도
확실히 깨닫고 아니까 힘이 오는데
종합하여 꿰어준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때는 얼마나 큰 힘이 오겠느냐.

[사도행전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예수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성자와 함께 예수’가 이 땅에 ‘영’으로 임하였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내었으니
준비하고 예비한대로 이 땅에 ‘신랑’으로 임하였다.

나 여호와가

성자와 일체 된 예수를 다시 ‘영’으로 보냈으니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성자와 일체 된 예수를 맞을 ‘육’이 있어야 한다.
이에 첫 신부의 열매를 맺은 시대 사명자가

‘육’ 이 되어 신랑을 맞았노라.

시대 사명자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결같이!

나는 첫 신부가 되어

신랑으로 다시 온 예수를 맞은 자요

다시 온 예수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가 쓰는 몸이라고 하였다.

<삼위와 영육 일체의 육>이 되려면, ‘급’ 이 맞아야지.

‘아들과 급이 맞는 아들’ 이어야, ‘아들의 육’ 이 된다.

‘신랑과 급이 맞는 신부’ 라야 ‘신랑의 육’ 이 된다.

구약 종급 시대는

모세가 못하면, 여호수아가 하면 되고

엘리야가 못하면, 엘리사가 하면 된다.

종들은 왜 이가 하다가 저가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지체로 났기 때문이요, 머리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종 모세는

내가 쓰기도 하고 나를 대면하여 말하기도 했으나

모세가 아무리 그 시대에 큰 자여도

종이요 지체로서 쓴 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큰 자여도

종이요 지체에 불과하다.

지체들은 오른손이 못 하면 왼손이 하면 된다.

이가 하다가 저가 할 수도 있다는 말은

‘종급 사고방식’ 이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쓰는 시대 보낸 자 말고

다른 자가 해도 된다’ 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종급 차원의 생각이다!
육적이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생각이니
참람함의 극치로다!

삼위일체 절대자는 머리이니
이 땅에서도
급이 맞는 ‘머리 된 자’ 만 ‘하나 되는 몸’ 으로 쓴다.

한 번 머리로 태어나면 머리다.
한 번 지체로 태어나면 지체다.

한 번 머리면 끝까지 머리지 지체로 바뀌느냐?
네 머리는 살다가 지체로 바뀌기도 하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 번 예수면 예수고, 첫 신부면 첫 신부이지
하다가 다른 자로 바뀌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나 여호와가 예수를 ‘아들’ 로 택했고
처음부터 시대 사명자를 시대의 ‘머리’ 로 택했고
처음부터 너희를 시대의 ‘지체’ 로 택한 것이다.

내가 <창조주>이니 ‘알파와 오메가’ 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이사야 45:9]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5:10]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45: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 하였노라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어떤 이는 은그릇으로,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어떤 이는 머리로, 어떤 이는 지체로,
내가 창조자이니
내 뜻대로 창조하고 택하여 쓰는 것이다.

날 때부터 지체로 났으면 머리가 될 수 없다.
지체는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살면 족한 것이지.
이는 절대 예정이다.

모든 천하 만물의 이치가 그러하다.
절대 예정이 있고 상대 예정이 있는 것이다.

<내가 머리로 택하여 쓰는 자>는 ‘절대 예정’ 이다!
날 때부터 머리 역할로 창조하여 택한 것이다.

예수도 날 때부터 내가 아들로 택하여 낳았다.

이 시대도 이와같이 이러하다.

45년 섭리 역사 동안

너희 지체 앞에 머리가 누구였나.

머리가 머리의 일을 행하니

모두 지체로서

그를 시대의 머리로 알고 절대 믿고 따랐지 않나.

네 머리는 살다가 지체로 바뀌기도 하느냐?

나 창조주가

시대의 머리로 창조하고 택하여 이 땅에 난 자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전도서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원의 사명자는,

<성자> 중심! <예수>와 <시대 사명자> ‘세 겹줄’ 이다.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역사>다!

세 겹줄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온전하듯이

구약, 신약, 성약의 세 겹줄 역사도 온전하며

성자, 예수, 시대 사명자 세 겹줄 역사도 온전하다!

이와 같이 창조주가 보낸 성자 중심! 세 겹줄로 하나인데

왜 시대 사명자를 따로 빼내어 보느냐!
세 겹줄에서 시대 사명자만 따로 빼내어
‘신랑이다, 주다.’ 하는 것이 불가하다!

머리를 하나로 볼 줄 알아야지.
하나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모르면 자기 무지만 드러낼 뿐이다.

‘너희 앞에 머리인 이 시대 사명자만 따로 보고 빼내면’
자기가 자기 머리를 베어 버리는 격이다.
머리는 하나인데
자기 머리 베어 버리듯이 빼서 버리면 되겠느냐!

[요한복음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의 영’ 이다.

도마처럼 하려느냐?
무엇을 더 보여줘야 믿겠느냐.
도마는 영을 보여주었어도 믿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처럼

이 시대에 성자와 함께 신랑으로 다시 온 예수도 ‘영’이다.

<성자와 일체 된 예수>가 ‘영의 머리’이니

‘육의 머리’ 쓰고 나타난다!

‘육의 머리’ 쓰고 다시 나타나니

‘육의 머리’ 통해 믿고 보는 것이다!

2022년에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해’로 선포하여
그동안 하나하나 때를 따라 합당하게 쫓개어 가르친 말씀들을
모두 하나로 종합하여

자동차 부품을 모두 조립하듯이 가르치고

구슬을 모두 하나로 꿰듯이

말씀을 가르쳐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 신부들이 2023년 끝까지 반드시 이르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힘을 주기 위함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냥 끝까지 이르라고 말만 하겠느냐.

‘반드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주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라’ 고
시대 사명자가 분명히 가르쳤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느냐?

신부는 신랑의 이름을 불러야지!

깨닫고 잘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미 2022년에 사명자가 꿰어준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신랑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신앙에 힘이 없는 자들도 있다.

깨닫고 신앙을 바로 하여

힘을 내라고 말씀하였다.

진주 한 알, 한 알을 다 껴있으면 진주 목걸이로 나타나듯이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다 조립했으면 자동차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말씀을 다 껴있으면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대 사명자가 늘 가르친 대로
나 여호와도 수시로 부르고, 성령도 부르고, 성자도 부르고
예수도 부르고, 사명자도 불러야지.

신부로서 임금 앞에 나아와
사적 대화, 공적 대화도 하겠지만
‘모든 대화의 마무리를 할 때’ 늘
늘 ‘공적으로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다.
모르면 배워서 제대로 대해야 한다.

공적인 약속대로
이 시대에 신앙으로 다시 온 자가 누구냐?
다시 왔으면 나타나는 것이다!
때가 되었으면 나타나는 것이다!

‘시대 사명자 육’을 통해
‘시대 사명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재림의 역사이니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시대 사명자가 가르친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하여라.

이같이 완전하게 45년 동안이나

다시 온 예수를 외쳐 가르친 자가
세상에 시대 사명자 외에 없다.
깨닫지 못하니
위력의 말씀을 주어도
사명자를 오해하고 신앙의 힘이 없는 것이다.

천 년 역사를 해야하니 45년 동안 때에 맞춰
하나하나 너희가 인식을 제대로 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나, 어느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가르쳤다.

참 선생이요, 참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다.
이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지금도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한때의 실수도 없이
혼인 잔치 창조 목적의 역사를
성령과 성자와 예수와 시대 사명자와 이루어 가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주인 나 여호와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제대로 알고 날마다 신랑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023년 끝까지, 정녕코 황금천국 끝까지 이르리라!

사랑하여 말하였다.
창조주 여호와니라.